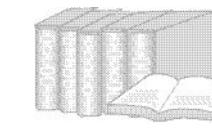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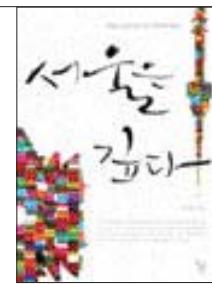
북

‘서울’의 시공간, 인문학적 보고서



새책

서울은 깊다 전우용 지음



“다리 밑을 차지하지 못한 거지들이 이 산(서울 방산동 부근의 야산)에 땅굴을 파고 거처를 마련하면서 ‘땅거지’ 무리가 생겨나게 됐다. 이를 땅거지들은 ‘꼭지판’이라 불리는 우두머리를 뽑아 세를 과시했고, 맨을 잡아 내다 파는 독점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땅거지를 ‘땅꾼’이라고도 했다.”

영조 31년(1755년) 청계천에서 폐낸 흙을 쓸어 만든 작은 산에 거지들이 몰려들었다. 우리가 흔히 쓰던 ‘땅거지’ ‘땅꾼’ ‘폐거지’도 이때 생긴 단어들이다. 600여년 동안 한국의 중심지였던 서울이라는 공간은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자체였다.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삼입연구원을 자제 전우용씨의 ‘서울은 깊다’는 서울의 시공간에 대한 보고서다.

도시연구로는 흔치 않게 역사의 흔적을 섬세히 짚어가며 이야기 중심으로 도시를 설명하는 책이다. 서울의 역사와 도시이론을 공부한 저자가 고서를 뒤지고, 밤품을 팔아 숨 가쁘게 변해온 서울을 잔잔한 문체로 풀어 놓았다.

책은 ‘신시’ ‘노는 놈과 미친년’ ‘무뢰배’ ‘역수궁 돌담길’ 등 서울과 관련된 단어와 지명이 주요 소재다.

‘땅거지’ ‘무뢰배’ ‘촌뜨기’ ‘어esson’ 등의 유래를 추적해 오래전 서울의 풍속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지난 600여년 동안 수도였던 서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은 19세기 말 고두밥으로 술을 만들고 있는 술도가 풍경.

관직에 나갈 수 없었던 서자 등이 세력 있는 자의 결에서 인생역전을 꿈꾸는 일이 흔해졌는데 이들을 ‘무뢰배’라고 했다. 서울 토박이들이 특권화되면서

비서울 출신을 일컫는 말인 ‘촌뜨기’와 상인들의 새로운 어법인 ‘어esson’이 생겨난 배경도 눈길을 끈다.

청계천, 종로, 덕수궁 분수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하고 물장수, 복덕방 등 사라져가는 서울의 문화를 들려주기도 한다.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의 탄생과 종말을 통해 서울의 중심지였던 종로의 역사도 살펴봤다. 고종의 도로 정비와 관련된 일화도 소개되고,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광준의 생활명품

윤광준 지음



혹시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볼스킨’ 수첩에 대해 들어봤는지. 화가 고흐는 이 수첩에 스케치를 남겼고, 헤밍웨이 역시 ‘해는 또 다시 뜬다’를 프랑스 카페에 앉아 볼스킨에 썼단다.

수년째 볼스킨 수첩을 쓰고 있는 사진작가 윤광준씨는 이 수첩이 ‘기록 본능을 자극한다고 말한다. 무언가 자꾸 쓰게 만드는 수첩,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물건인 셈이다. 이 수첩엔 분실 후 되돌려 받을 때 보상할 금액을 적는 칸이 있다. 윤씨는 호기롭게 1천만원을 적어두었다. (수첩 가격은 1만원대 중반) 그 안에는 자신의 삶과 원대한 꿈이 담겼기 때문이다.

볼스킨 수첩처럼 오랫동안 걸에 두고 써온,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이 많은 윤씨가 ‘윤광준의 생활명품’을 평했다. 물건은 시간이 달 göke야 이를다워진다’고 생각하는 저자가 소개하는 생활 명품은 60가지다.

당신이 선택한 바로 그 물건이 명품



‘명품’이라고 해서 주눅 들 필요는 없다. 18만 원짜리 파비 카스텔사의 연필세트, 600만원짜리 브라이틀린 내비 타이머사의 시계 등 눈 번쩍 뜨이게 하는 고가 물품도 있지만 1천200원짜리 장수 막걸리, 30개 5천원하는 천안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 세계 손톱깎이 시장의 43%를 장악하고 있는 씨리세쁜 손톱깎이도 명품 반열에 들었다.

50만 원 대 빌힐립 카메라 백을 쓰는 윤씨는 ‘좋아하는 일에 걸맞는 물건의 격을 갖추는 것은 결코 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 소유의 페퍼를 넘어선, 물건의 존재감에 어울리는 의식의 환기가 중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물건만으로는 생명이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고가 가방

의 가치를 나타하지 않은 작업으로 깊다고 말한다.

책 속에 등장하는 제품 중 비교적 저렴한 포스트잇 허더, 마페드 가위, 모리스 엔진 오일 등은 한번 쯤 써보고 싶게 만드는 물건들이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너무 비싸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제품도 많지만 경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잘 찍은 사진 한장’, ‘소리의 황홀’ 등은 베스트셀러를 통해 만만찮은 글쓰기 실력을 보여준 윤씨의 내용이 이 책에도 잘 드러난다. 가격과 크기 등 제품 정보와 책을 보고 혹독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구입처를 명기해 놨다.

/음유문화사·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자, 고전의 숲으로

한길그레이트북스 길라잡이

한길사는 고전과 출판
고전 번역 시리즈 ‘한길그레이트북스’가 아서 단토의 저서 ‘일상적인 것의 변용’ 출간으로 100권째를 맞았다.

지난 1996년 출판사 창립 20돐을 기념해 첫 번째 헤드의 ‘남편의 모험’을 끈번 아래 ‘제국의 시대’ 등 지금까지 수준 높은 인문학 고전들을 소개해 왔다.

한길사는 ‘한길그레이트북스’ 100권 출간을 기념, 그동안 나온 책들을 정리해 ‘가자, 고전의 숲으로’를 함께 평냈다. 책에는 시리즈를 이룬 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읽기인의 해설, 원저자 프로필, 핵심이 되는 본문 발췌문 등이 실렸다. 또 서양 중심의 고전에서 벗어나 조선의 ‘남명집’ 이익의 ‘성호사설’ 등 한국의 고전을 비롯해 시대와 국가별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소개됐다. (한길사·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

▲미국과 맞짱 놓 나쁜 나라들=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리아, 베트남, 북한, 이란, 리비아 등 미군이 나쁜 나라라고 지목한 7개 나라의 ‘반미’를 다뤘다. 7명의 저자들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 쇼답회에서 나눈 이야기도 함께 실렸다. 〈시대의 창·1만3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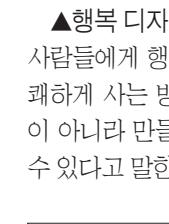
▲한국인의 일본사=한국일본사상사학회 학술이사인 정혜선이 ‘왜 일본은 한국과 다른가?’에 초점을 맞춰 문학, 철학, 종교, 예술 등 각 분야를 오가며 일본사회를 파헤치고 이웃 나라들과 비교했다. 21세기 일본 국가에 대해 전망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역할과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담았다. 〈현암사·2만5천원〉



▲다윈의 플롯=세계적인 영문학자인 질리언 비어가 다윈의 진화론이 19세기 빅토리아시대의 영문소설과 이후의 문학에 기친 영향을 탐구했다. 조지 엘리엇, 토마스 하디 등 영국 빅토리아 시대 작가들의 작품에 다윈의 진화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휴먼리스트·2만8천원〉



▲동물의 감정=생물학자자 동물행동과학자인 마크 베코프의 동물 감정 연구서. 동물의 감정표현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동물에게도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마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시그마북스·1만3천원〉



▲행복 디자이너 최윤희의 유쾌한 성공사전=방송과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과 성공 에너지를 주고 있는 스타강사 최윤희가 유쾌하게 사는 방법 103가지를 소개했다. 저자는 성공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생각을 하기에 따라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니무생각·1만원〉



▲수학으로 생각하다=일본 데이쿄대학 교수 고지마 히로유키가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이 주변의 여러 현상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이론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했다. 상대성 이론, 우주의 빅뱅, 게임이론 등 다양한 현상과 이론을 수학적으로 해석했다. 〈동아시아·1만2천원〉



▲색상, 계=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상자상을 수상한 리안 감독의 영화 ‘색’의 원작소설. 뮤신과 함께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장아이링이 쓴 표제작을 비롯해 30년에 걸쳐 완성한 단편소설 7편이 실렸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의 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인권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폈다. 재소자에 대한 흡연 금지조항, 법무법인들의 행태,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상들, 무노조주의를 내세우는 기업 등 한국사회가 ‘자양’(止揚)해야 할 모습을 담았다. 〈삼인·1만1천원〉



▲인터넷 권력의 해부=정보통신, 정치학, 외교학, 언론학 분야의 전문가 13명이 인터넷 미디어의 지식도록이 야기한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구글, 네이버, 위키피디아, UCC, 소리바다, 리니지 등 독자에게 익숙한 개념을 들어와 인터넷 지식의 권리화 현상을 다양 한 각도에서 살폈다. 〈한울아카데미·1만6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0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로, 대인동 소방서간판)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도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증개사

□(代)972-4585 훤 011-804-6205
(첨단지구 부업 A LC빌딩 사거리)

★급매 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빌라, 목욕탕 및

공장면적 3층 910평, 대지 800평 신축준공2007년11월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부동산청사 2008년 개장 예상 314평

•부업·호텔·파티룸·점포 등 145, 135평

•정부·부동산청사 입구 이전도로·당면

•200평 대 80평 매입 예상 2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88 간145 월류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원/월 140평 15개

보2000만 원/월 40평 14평 135평

대70평 간120 월류6 투룸3 주

인 3층 1개 보1억2천만 원/월 180만 원/1평1천만원

대88평 간127평+주차장 투룸 4 월류8 보8800만 원/월 300만 원/40평 1만4억7천만원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기동 부영④ 부근

•인천동, 비아 증정④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전동 공원 8년보부근 450평

700평 공장 청고 적합

•북구 지하동 30m도로로 인근 전후면 도로로 기는 청정, 청고, 공장 적합

법원 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경매)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대/전 면적/층/호수/가격/최저가

화성동 31,475.5 750평 520평 24,710 4500만 3880만

수원동 56.25 19,220평 570평 32.9 5500만 7880만

도당동 42.41 18,220평 520평 24.6 7000만 4400만

서동 51.5 19,130평 700평 35.6 2억 1000만

월곡동 63,547 19,900평 700평 44.29 19,500만 9450만